

중학생의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박 경 선¹⁾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문 혁 준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학생 287명이며 자기보고식 질문지 법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분노조절,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와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분노조절력은 높아지고,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분노억제가 높았으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표출과 억제의 표현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분노표출에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분노억제에는 가족유대감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업과 학습활동만족감,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또한 분노조절에는 성별, 가족건강성, 완벽주의의 두 하위요인 모두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건전한 분노표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분노,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E-mail : mhyukj@unitel.co.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폭력 10건 중 7건은 중학생이 가해자이며, 2010년 전국 초·중·고교 폭력사건도 전체의 69%가 중학교에서 발생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이미 각종 매스컴을 통해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며 일탈적인 행위 등의 위기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지는 오래이며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영미, 한재희, 2013). ‘엄마들의 사춘기보다 다이내믹하고 언니·오빠들의 청소년기보다 훨씬 과감한 중학교 시절을 보내는 요즘 아이들을 두고 「중2병」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중앙일보, 2013. 4. 6).’ 즉, 지식중심의 교육제도 등으로 인해 더욱 극심해진 스트레스와 분노 감정의 부적절한 표출은 극단적 행동양식을 촉발하며, 과거 고등학생 시기에 겪었을 법한 행동유형이 최근 들어서는 중학생 시기로 연령이 하향화 되는 추세로 안정미와 안권순(2012)의 연구에서도 분노경험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분노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사회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강력한 정서 중 하나이다. 분노란 외부에서의 자극으로 생겨난 감정으로 적절히 방출되어야 하는 동시에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내적이며 감정적 반응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분노유발 원인은 단순히 심

리적 경험뿐만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는 정서라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정선화, 2004). 분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적으로 위해를 받았을 때 나타나기 쉬우며 특히 청소년기에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뚜렷하게 표출되기도 하고(강석기, 변보기, 2002) 부모들의 의사소통 양식을 학습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분노 정서를 느끼고 학습하기도 한다(오지현, 2010).

보통 분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의 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분노표출은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양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의 타인이나 대상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극단적인 모욕으로써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분노억제는 화가 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억압하는 것,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된 사고와 기억 혹은 분노 자체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분노조절은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속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표현양식이므로 분노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냉정을 유지하려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은 생존적 가치를 지니는 인간에게 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며, 일상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적이며 자연스러운 정서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분노를 다루고 표현하는 내·외적 과정의 조절 실패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분노를 경험한다는 것과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분노경험은 생리적인 반응과 함께 느껴지는 정서적 상태인데 반해, 분노표현은 분노를 경험한 느낌에 대한 개인의 대응양식이라는 행동적인 차원을 말한다(고경희, 2000). 분노표현방식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분노표현방식의 파괴적 반응으로 인한 청소년 비행, 또래 괴롭힘, 삶의 만족도 저하라는 역기능적 일면을 제시해 주고 있다(김가희, 2008; 박지영, 2010; 장혜주, 임지영, 2012). 또한 청소년의 경우, 분노의 억제가 심할수록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삶과 상황에 대한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분노표출 또한 남녀 학생의 가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학생의 피해 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박지영, 2010). 더불어 분노 정서의 미숙한 조절, 억압, 부적절한 표출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충동성 등의 심리적 이상 증세를 야기하거나 비행행동, 학교폭력 등의 사회 부적응, 신체적 이상 증세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고려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로 다른 어느 발달 단계보다 다양한 분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자의식이 강해져 자유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악

의적 공격에서 개인의 자기정체감을 위협하고 모욕을 느끼게 되며, 지속적이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분노 유발의 근원에 잠복돼 있는 시기로 청소년의 분노는 본인의 요구나 욕구가 제지당하거나 자기주장이 무시되었다 느낄 때 표출될 수 있다(박희숙, 하정희, 2007; 오지현, 2010; 이은승, 2011).

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유익을 가져다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양명희, 김은진, 2007). 다시 말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분노는 적절히 표현되는 경우 타인과의 갈등을 수면 위로 표출시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고, 때로는 불안감에 대한 자기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손민정, 200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분노는 단순히 원초적이고 통제될 수 없는 정서가 아니라 화가 난 사람과 원인이 되는 사람 모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분노가 감정, 행동, 결과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짐에 따라 분노 유발 원인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추세로(고은영, 최혜라, 2002)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갖는 분노의 예측변인을 부모의 양육태도나 또래 애착 등의 사회적 환경(김가희, 2008; 박유니, 이정숙, 2012; 정윤성, 2007; 황연덕, 이진숙, 2010)과 기질, 자아존중감, 성별, 완벽주의(구연익, 2010; 김미희, 2011; 이선화, 2012; 이재연, 김광웅, 2007; 조유경, 2012)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중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성격유형(Stoeber & Otto, 2006)으로 알려진 완벽주의는 스트레스, 우울, 분노와 심리적 부적응 상태와 관련성이 있으며(유경나, 강민주, 2011), 분노표출을 강화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져 왔다(구연익, 2010). 특히, 무한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은 성취압박 등에 기인한 완벽주의를 매개로 분노를 경험하기 쉽지만(유경나, 강민주, 2011), 이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완벽주의는 개인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용을 위한 노력에서 즐거움이 파생된다고 하는 개인의 우수성에 초점을 둔 긍정적 측면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할 때 야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Besharat & Shahidi, 2010). 이러한 맥락에서 Stoeber와 Otto(2006)는 완벽주의를 건강한 완벽주의와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건강한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자들은 실수와 수행에 관한 염려와 의심, 높은 기대와 성취 차이에 대한 의식과 부담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완벽주의를 3가지 차원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분류한 시각도 있다(Hewitta, et al. 2002).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며 높은 기준 자체가 동기화되어 일의 성취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특성을 갖는 반면,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타인들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타인

을 비난하거나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집단 내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이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한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하며 학습된 무기력,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 상태를 경험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실패감, 무망감과 함께 분노 정서를 느끼며 흥분, 동요를 느낄 수 있고(조영미, 2003), 분노를 억압시키거나 외부로 표출시키는 성향을 갖고 있다(이재연, 김광웅, 2007).

한편, 분노표현방식이 개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환경 여건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김종은, 이운주, 2013) 부모의 양육 태도나 가족의 구조적 특성, 가족관계의 특성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중요 변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 가족건강성은 가족 안에 잠재된 가능성과 발전성,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등 가족의 발전성을 중심으로 정의된다(유영주, 최희진, 2004).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라나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유계숙, 2004). 가족건강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한 가족 관계가 청소년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성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진로성숙도의 결여, 학교 부적응, 인터넷 중독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년의 만성적인 분노 및 폭력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인 태도, 과잉보호, 무관심, 비일관적 부모 양육태도를 가진 가정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문자, 2003). 또한 가족 구성원의 원가족 경험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다시 자녀의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태영, 유진희, 2012). 특히, 분노는 대인관계에서 쉽게 발생하는 정서로서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더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분리나 개별화에 대한 허용도가 낮다는 특성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획득과 독립에의 욕구가 크게 상충됨으로써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분노 표출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승현, 2010).

또한 학교환경도 분노표현방식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사회적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학업, 교사, 또래와의 관계, 학교환경 등의 관점에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학교생활만족도이다. 질적인 삶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며 질적 변수인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는 개념화되었다(곽윤정, 이현웅, 2012). 김미경(2001)은 학교생활만족도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의 정도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갖는 선호 감정으로 학교에서 체감되는 외부 경험에 대한 호

의적인 느낌이나 태도라고 규정한 김주연(2008)의 정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특히 하위요소 중 또래관계와 분노 간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 청소년기에 형성된 우정은 기대가 침해된 경우 분노 감정을 더 크게 인식하며(Harter & Whitesell, 1996), 분노표현의 감소와 분노조절 능력의 향상은 또래관계의 인식 개선에도 효과를 가져와 교우관계에 있어 지속적 경향성을 보이며 친구들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희, 반지정, 2010). 교사 관계에 있어서도 교사로부터 인정의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 얻는 스트레스는 학생의 폭력행동과 분노의 원인이 되며(김진호, 2009), 분노, 우울, 무력감 등의 신체적 반응은 학업성취와 가장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이지영, 2012) 분노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청소년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이영화, 김경연, 2013; 장혜주, 임지영, 2012)이나 완벽주의(윤현영, 2003; 정해숙, 2011), 가족건강성(김병수, 2009; 황현주, 2004), 학교생활만족도(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6) 등의 연구를 통해 성별이 주요 변수로 작용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변인인 분노,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를 모두 다룬 연구는 없어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는 청소년의 기본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스트레스,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노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분노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적었던 만큼 분노를 향한 관심의 방향과 내용도 달랐다. 이를테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노 관련 연구는 분노를 주로 건강과 관련된 신체화 증상, 우울, 불안 등과 연계해 그 추이를 보여 주었고, 청소년 대상의 연구라고 하더라도 학교적응, 공격적 행동, 학교폭력, 흡연, 음주와 같은 문제 행동 속에서 연구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분노가 어떠한 수준과 모습으로 존재하며, 다른 적응적인 심리적 변인들과는 어떠한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고 분노에 대한 심리적 기초 관련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양명희, 김은진, 2007). 하지만 초기 청소년기는 신체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정서발달의 속도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분노가 발생하게 되어 이것이 타인이나 자신에게 향하여 부적절하게 표현되는 시기이며(안윤영, 2012), 중학생의 분노와 공격성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론적 고찰은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

로 중학생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탐색하여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는 중학생과 가정, 학교를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및 학교생활만족도,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중 분노표현방식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중학생의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287명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48명(51.6%), 137명(47.7%)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147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72명(25.1%), 3학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N=287)*

	구분	빈도	%
성별	남학생	148	51.6
	여학생	137	47.7
학년	1학년	147	51.2
	2학년	72	25.1
	3학년	68	23.7
형제	있다	248	86.4
유무	없다	39	13.6

주. *무응답에 따라 변인의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68명(23.7%) 순이었다. 형제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248명(86.4%)이 형제가 있고 나머지 39명(13.6%)은 외동이라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중학생의 분노표현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중학생이 지각한 분노표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중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9문항, 분노표현 24문항, 완벽주의 30문항, 가족건강성 25문항, 학교생활만족도 21문항을 측정하는 총 10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표현방식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 (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의 한국어판 STAXI-K(한덕웅, 전경구, 이장호, Spielberger, 1997)에 있는 하위 영역별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 8문항, 분노억제 8문항, 분노조절 8문항의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표출은 분노의 감정을 주어진 환경에서 타인이나 물건 등 어떤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심리·행동적 과정을 측정하고, 분노억제는 분노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억압하는 심리·행동적 과정을 측정하며, 분노조절은 분노에 대한 감정표현을 조절하는 심리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70으로, 각각의 하위요인별로는 분노표출 .69, 분노억제 .76, 분노조절은 .79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중학생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Hewitt와 Flett(1991)이 제작하고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3가지 하위 영역 척도 중 응답자 본인만을 완벽주의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기에 이를 위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2요인을 채택하였으며 각각 15문항씩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완벽주의 요소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자기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비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신념 혹은 지각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각각의 하위요인별로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7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71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 척도는 한국가족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중심으로 제작된 어은주, 유영주(1995)의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가족 간의 유대감 10문항,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9문항,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능력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5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척도이며,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 및 각 하위 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로 각각의 하위요인별로는 가족 간의 유대감 .9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84,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능력 .73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주연(2008)이 개발한 ‘학교생활만족도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5개의 하위요인은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3문항), 대인관계 만족감(4문항), 학습활동 만족감(4문항),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4문항),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6문항)이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이며, 각각의 하위요인별로는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77, 대인관계 만족감 .76, 학습활동

만족감 .79,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74,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설문지의 난이도 및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 중학생 5인과 아동교육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3년 4월 25일부터 2013년 5월 10일까지로 경기도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1개교의 협조를 얻어 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위한 유의사항을 미리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회수한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항목이 중복 혹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287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질문지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 성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와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

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분노조절의 경우 남학생($M=2.70$, $SD=.59$)이 여학생($M=2.43$, $SD=.51$)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15$, $p<.001$).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경우 하위요인 중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은 남학생($M=2.61$, $SD=.77$)이 여학생($M=2.40$, $SD=.69$)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t=2.37$, $p<.01$),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2.12$, $p<.05$), 남학생($M=2.52$, $SD=$

표 2.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N=287$)

		남학생 ($n=148$)	여학생 ($n=137$)	<i>t</i>
		<i>M(SD)</i>	<i>M(SD)</i>	
분노표현방식	분노표출	1.78(.39)	1.81(.44)	.71
	분노억제	1.98(.53)	2.01(.53)	-.42
	분노조절	2.70(.59)	2.43(.51)	4.15***
완벽주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2.33(.42)	2.25(.40)	1.6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2.22(.41)	2.18(.38)	.79
	전체 완벽주의	2.28(.37)	2.22(.35)	1.37
가족건강성	가족유대감	2.87(.65)	2.90(.69)	-.40
	가족원과의 의사소통	2.65(.59)	2.68(.61)	-.39
	가족원과의 문제해결능력	2.68(.57)	2.69(.61)	-.17
	전체 가족건강성	2.75(.58)	2.77(.61)	-.36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2.57(.78)	2.59(.74)	-.27
	대인관계 만족감	2.96(.69)	2.90(.66)	.77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2.61(.77)	2.40(.69)	2.37**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2.52(.78)	2.34(.61)	2.12*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2.85(.68)	2.92(.61)	-.95
	전체 학교생활 만족감	2.72(.61)	2.66(.53)	-.88

* $p<.05$. ** $p<.01$. *** $p<.001$.

.78)이 여학생($M=2.34$, $SD=.61$)에 비해 수업과 학습활동,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와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

중학생이 지각한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와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와 분노표현방식의 하위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의 변인 중 자가지향적 완벽주의는 분노억제, 분노조절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노억제($r=.26$, $p<.01$), 분노조절($r=.31$, $p<.01$)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변인 역시 분노억제와 분노조절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억제($r=.34$, $p<.01$), 분노조절($r=.27$,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건강성의 하위 변인인 가족 유대감 변인은 분노표출($r=-.25$, $p<.01$), 분노억제($r=-.22$, $p<.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조절($r=.21$, $p<.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가족원과의 의사소통 변인도 분노표현방식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분노표출($r=-.19$, $p<.01$), 분노억제($r=-.17$, $p<.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조절($r=.25$, $p<.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가족원과의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 분노억제($r=-.14$, $p<.05$), 분노조절($r=.2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은 분노표출($r=-.15$, $p<.01$), 분노억제($r=-.16$, $p<.01$)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조절($r=.16$, $p<.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대인관계 만족감에서는 분노억제($r=-.12$, $p<.05$)와는 부적 상관을, 분노조절($r=.19$, $p<.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도 분노억제($r=-.20$, $p<.01$)와는 부적 상관을, 분노조절($r=.18$, $p<.01$)과는

표 3. 분노표현방식,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상관분석

($N=287$)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
완벽주의	1.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03	.26**	.31**
	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0	.34**	.27**
가족건강성	3. 가족유대감	-.25**	-.22**	.21**
	4. 가족원과의 의사소통	-.19**	-.17**	.25**
	5. 가족원과의 문제해결 능력	-.11	-.14*	.20**
	6.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15**	-.16**	.16**
학교생활 만족도	7. 대인관계 만족감	-.05	.12*	.19**
	8.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10	-.20**	.18**
	9.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17**	-.12	.16**
	10.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11	.11	.21**

* $p<.05$. ** $p<.01$.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에서는 분노표출($r=-.17, p<.01$)과 분노조절($r=.16, p<.01$)에 있어 유의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은 분노조절($r=.21,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완벽주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분노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분노억제를,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분노표출과 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의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 성별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완벽주의의, 3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 4단계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를 투입하였다. 이에 앞서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지수와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2.02~2.17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

도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완벽주의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로 완벽주의가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완벽주의의 총 설명력은 1%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가족건강성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0%로, 가족유대감과 가족원과의 문제해결 능력이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완벽주의, 가족 건강성 관계의 총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4%이며,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총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가족유대감($\beta=-.56, p<.001$), 가족원과의 문제해결($\beta=-.31, p<.01$),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beta=-.15, p<.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과 완벽주의는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유대감과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이 낮고 가족원과의 문제해결 능력이 낮을수록 분노표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N=287)

독립변인		분노표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성별 ^a		.04	.04	.04	.04	.04	.05	.04	.05
완벽주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04	-.04	-.03	-.03	-.02	-.0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3	.13	.14	.13	.14	.14
가족건강성	가족유대감					-.35	-.56***	-.34	-.56***
	가족원과의 의사소통					.04	.05	.05	.07
	가족원과의 문제해결능력					-.22	-.31**	-.21	-.31**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08	-.15*
	대인관계 만족감							.11	.18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02	.03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09	-.15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02	-.02
F값		.47		1.23		5.67***		4.20***	
R ²		.00		.01		.11		.15	
R ² 변화량				.01		.10		.04	

a: 가변수(남학생=0, 여학생=1)

* $p < .05$. ** $p < .01$. *** $p < .001$.

1단계에서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완벽주의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2%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완벽주의의 총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가족건강성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9%로, 성별과 완벽주의, 가족 건강성 관계의 총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4%이며,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총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가족유대감($\beta = -.32, p < .0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beta = .29, p < .001$),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beta = -.21, p < .01$),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beta = .19, p < .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유대감과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이 낮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분노억제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 ($N=287$)

독립변인		분노억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성별 ^a		.03	.02	.05	.05	.06	.06	.03	.03
완벽주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10	.08	.16	.13	.24	.1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41	.30***	.42	.31***	.40	.29***
가족건강성	가족유대감					-.24	-.30*	-.25	-.32*
	가족원과의 의사소통					-.01	-.01	.09	.10
	가족원과의 문제해결능력					.02	.03	.02	.03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07	-.09
	대인관계 만족감							.00	.01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16	-.21**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03	-.04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06	.07
<i>F</i> 값		.16		13.16***		11.91***		8.31***	
<i>R</i> ²		.00		.12		.21		.25	
<i>R</i> ² 변화량				.12		.09		.04	

a: 가변수(남학생=0, 여학생=1)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에 의한 설명력은 6%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완벽주의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9%로, 성별과 완벽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가족건

강성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0%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완벽주의와 가족원과의 의사소통으로 총 설명력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2%이며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총 설명력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가족원과의 의사소통($\beta = .34$, $p < .05$), 성별($\beta = -.26$, $p < .001$),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beta = .16$, $p < .0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β

표 6. 성별,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N=287)

독립변인		분노조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성별 ^a		-.27	-.24***	-.24	-.21***	-.25	-.22***	-.29	-.26***
완벽주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26	.19**	.22	.16*	.23	.1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21	.15**	.20	.14*	.19	.13*
가족건강성	가족유대감					-.01	-.01	-.07	-.08
	가족원과의 의사소통					.29	.30*	.32	.34*
	가족원과의 문제해결능력					-.12	-.13	-.11	-.12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06	.08
	대인관계 만족감							-.07	-.09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07	-.08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12	-.14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16	.19
F값		17.23***		16.37***		10.67***		6.38***	
R^2		.06		.15		.19		.21	
R^2 변화량				.09		.10		.02	

a: 가변수(남학생=0, 여학생=1)

* $p < .05$. ** $p < .01$. *** $p < .001$.

=.13,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분노조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가족원과의 의사소통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 만족도 하위요인 중 분노표현의 3가지 양상 즉,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분노조절,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과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방식은 하위 요인인

분노조절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분노조절 능력이 높다는 것은 장지윤(2011)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김희숙(2008)의 연구에서 분노조절 행동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우수하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충동적이어서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 표현에 미숙한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고정화된 기대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과거 여성의 인내를 미덕으로 여겼던 유교적 사상의 틀을 벗어나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개인적 감정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과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은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것에서 만족을 찾는다는 선행연구(강경희, 2008; 이동수, 김영숙, 2009)와 여학생이 학교생활 적응에서 남학생에 비해 취약하다(최지원, 박영숙, 2011)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와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와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분노조절력은 높아지고,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분노억제가 높았으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표출과 억제의 표현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분노표출의 경우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 중 가족유대감과 가족원과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

족도 중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 정도도 낮으며 분노·우울과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0), 가족 간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박유니, 이정숙, 2012). 중학생의 경우 소속 집단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건전한 인간관계를 고양시키고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음을 학습해 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좌절감을 느끼기 쉽고 이를 부적절하게 드러내어 화난 표정과 욕 혹은 말다툼, 과격한 공격행동을 나타냄으로 분노를 발산하기도 한다. 또한 또래관계 안에서 이러한 표출 양식을 학습한 청소년은 강화를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고무되는 악순환에 봉착하기 쉽다. 따라서 바쁜 현대인의 생활패턴으로 유발된 가족 간 정서 교류의 결핍이 학교라는 2차 집단에 진입해서까지 부적응 형태의 구도를 답습되게 됨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분노억제의 경우 완벽주의와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위요인, 학교생활만족도 중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완벽 성향이 높고 가족건강성과 학교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분노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의 억제는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주지 않도록 분노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분노억제는 병리적 요소로 발전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어 정신적으로 성숙된 성인의 경우 자기주장을 통해 분노를 적절히 방출할 줄 아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 표현의 미숙함으로 자기비하나 스트레스,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기도 한다(김소영, 홍세희, 2012). 이러한 분노와 자살의 상호관련성은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자살 방지를 위해 청소년들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수용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해 주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를 간과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한 표현을 독려함과 동시에 심리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분노조절은 완벽주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의 경우 분노조절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조현익(2010), 고희경과 현명호(2009)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완벽주의가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양미경(2008), 이재연과 김광웅(2007)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건강성 변인에 있어서는 부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분노조절 문제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박태영, 유진희, 2012), 자녀가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분

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김종은과 이윤주(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족건강성과 분노와의 상호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초기 청소년 시기에 학업적 능력과 학교 가치감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이 낮아지면 분노감정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한 Roeser와 Eccles(1998)의 선행연구(이규미, 2005, 재인용)나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낮은 학업 수행 등의 사회적 유능감 결여가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한 김종은과 이윤주(2013)의 연구는 분노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련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셋째,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유대감과 가족원과의 문제해결능력,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분노표출의 문제점은 이러한 표현양식이 분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며 사회적인 행동양식을 형성하며 사회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역기능적 도식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성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중학생의 시기에 외현적이고 공격적인 분노표출이 심리적 병리현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내의 관심과 지도가 중재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생 시기는 고등학생에 비해 가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로 가족, 학교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가치관과 정서의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사회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분노억제에는 가족유대감과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 수업과 학습활동만족감,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즉,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은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분노표현의 하위수준인 분노억제가 높아진다는 김가희(2008), 이재연과 김광웅(2007)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분노 억압의 수준도 높은 것은 본인 분노에 대한 감정과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며 속앓이를 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타인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염려하는 까닭에 적절히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 또는 억압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분노표현 방법을 교육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분노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해소한다거나, 분노의 귀인을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한편, 분노조절은 성별, 완벽주의(자가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가족건강성(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노조절에 대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영향력을 통해 청소년의 분노는 부모의 분노와 직결되어 있으며(Oana, Daniel, Raymond, & Tamara, 2011), 가족건강성이 낮아 건강하지 못한 집단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외부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김현주, 이해경, 2009), 가족이나 친구, 교사 등과의 미시적 관계가 밀접할수록 가족

건강성이나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중간체계가 원활해지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를 이끄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줄이며 정서적 자율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박희숙, 하정희, 2007)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 또래 간 밀착도가 견고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는 결과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분노연구에 관한 대체적 결과는 분노의 원인에는 가족의 건강성, 하위요인으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영향력이 컸으며(권정연, 2005) 내재화 행동 문제인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와 신체증상 문제에도 영향력을 나타냈고,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도 정적 효과(양명숙, 2007)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정 내에서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이해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발달과정 중에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 환경의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또한 완벽주의의 하위 영역 모두 분노조절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가 완벽주의를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설명해 왔으나 운동선수들의 분노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조현익(2010)의 연구나 자가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분노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고희경과 현명호(2009)의 연구,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완벽주의가 분노의

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능케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완벽주의의 긍정적 특성 중의 하나인 수용을 위한 노력에서 즐거움을 파생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분노라는 정서를 인지하고 통제하는 기제가 긍정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로 인해 형성되는 인지 부조화를 완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다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자의 특성(고희경, 현명호, 2009; 정혜경, 2010)과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행동을 하거나 분노를 자연스럽고 조절할 줄 아는 사회지향적 완벽주의의 특성(정해숙, 2011)에서 감정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 조절하여 기인한 결과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분노조절 영향력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분노조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분노조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구연익(2010), 정해숙(2011), 조혜리(2009), 한동화(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차에 따른 분노의 표현, 억제, 조절력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영화와 김경연(2013)의 연구에서는 분노억제 수준은 여학생이 높다고 했고, 한동화(2008)는 억제와 표출은 여학생이 높지만 조절은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김가희(200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노표출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성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 또래 등의 상호작용

유형의 상이함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문혁준, 2010). 이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성향 혹은 개인이 소유한 사회변인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력과 조절력을 판가름하는 주요 변인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며 또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설계 시 성별에 의한 이원체제보다는 사전검사에 근거해 각 개인이 갖는 고유한 성향 혹은 분노표출 형태를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청소년의 분노가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생태학적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청소년과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들 간의 상호교류 형태와 공유 영역(이상균, 2012)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받을 수 있었다. 즉, 교육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 교육과 상호교류를 위한 가정과의 연계 교육, 가족상담 등을 진행하도록 하며, 학교 교사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의 분노와 조절 전략들에 대한 이해와 대처전략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특히 부정적 경험 또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유미숙, 2003).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노를 억압하여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분노를 자꾸 분출하여 스스로 망가지는 양극단의 방식을 중재하여 분노감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조절, 통제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청소년 후기뿐 아니라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향상과 긍정적인 인생관을 아우르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은 조기교육의 붐을 타고 남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가진 특출난 아이로 키우기 위해 학습과 지식 중심의 사교육에 의존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 본연의 기능을 차치한 이러한 경향성은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가족원 모두를 위기 상황에 직면케 하는 것이며, 가족 및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가정·학교·사회적 협력과 인프라 조성은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의 1개교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표집이 필요하다.

둘째, 중학생의 분노표현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객관화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보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을 통한 분석도 고려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분노표현방식에 있어 분노표출에는 가족건강성(유대감, 문제해결능력)과 학교생활만

족도(전반적 만족감)가, 분노억제에는 완벽주의의 모든 하위 요인과 가족건강성(가족유대감)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수업과 학습활동만족감)가, 분노조절에는 성별과 완벽주의(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가족건강성(가족원과의 의사소통)이 영향력을 갖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족건강성 변인은 세 가지 분노 표현 양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분노조절과 같은 정서에는 가정의 건강성이 중핵이며 이러한 터전 위에 최종적인 청소년들의 행복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한국인의 가족정서는 끈끈한 정을 기반으로 하되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칫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단절과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학교·지역사회 공동체의 유기적 노력과 더불어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이루는 토양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희 (2008). 특수목적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석기, 변보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9-291.

- 고경희 (2000). 특성 분노, 분노표현양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영, 최혜라 (2002). 분노표현방식과 분노표현의 적절성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상담, 20(1), 29-44.
- 고희경, 현명호 (2009). 완벽주의와 분노 표현양상 간 관계에서의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임상심리학회지, 8(1), 97-116.
- 곽윤정, 이현웅 (2012). 방과 후 수업이 학생 선수의 학습역량과 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9(3), 25-53.
- 구연익 (2010). 남녀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 표현양식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연 (2005).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및 정서 상태와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18(1), 20-39.
- 김가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분노 표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 (201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 및 자아존중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수 (2009).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과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4), 91-103.
- 김소영, 홍세희 (2012). 초기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유형 분류와 예측. 한국청소년연구, 23(1), 251-275.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6). 초등학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아동교육, 15(1), 195-207.
- 김종은, 이윤주 (2013).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2), 753-769.
- 김주연 (2008).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호 (200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인간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이해경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20(3), 33-59.
- 김희숙 (2008). 실업계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2), 270-279.
- 문혁준 (2010).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어머니 변인 연구. 한국보육학지원학회지, 6(1), 251-267.
- 박유니, 이정숙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7(1), 75-91.
- 박지영 (2010). 남녀 중학생의 스트레스, 분노, 대처행동과 또래 괴롭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 유진희 (2012). 분노조절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

- 정관리학회지, 30(3), 119-133.
- 박희숙, 하정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 수준과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의 분노 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 96-101.
- 서경희, 반지정 (2010). 인지 행동적 조절프로그램이 공격성향이 있는 아동의 분노 통제 능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9(3), 91-108.
- 손민정 (2003). 부모와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이 자기주장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윤영 (2012). 분노관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분노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 105-126.
- 안정미, 안권순 (2012). 청소년의 분노정서 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3), 267-292.
- 양명숙 (2007).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1), 351-363.
- 양명희, 김은진 (2007). 청소년의 분노와 자기개념 명확성,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 탐구. 한국청소년연구, 18(1), 163-184.
- 양미경 (2008). 초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45-156.
- 오지현 (2010).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7(4), 53-68.
- 유경나, 강민주 (2011). 청소년의 적응적,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6), 55-74.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미숙 (2003).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425-444.
- 유영주, 최희진 (2004).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도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과 문화, 16(1), 63-107.
- 윤현영 (2003). 중학생의 완벽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3), 313-330.
- 이규미 (2005).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수, 김영숙 (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0(1), 93-114.
- 이문자 (2003).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생태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2012). 청소년기 비행행동과 부모양육 행동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1), 157-186.
- 이선화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현 (2010). 남녀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전략,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 이

-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한재희 (2013). 모가 지각한 부모기대
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극복경험. 상
담학연구, 14(2), 1401-1422.
- 이영화, 김경연 (201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인
정 욕구, 불안 및 분노억제와 관계적 공
격성 간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51(2),
219-228.
- 이은승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와 분노경험 및 분노 표현 간의 관계. 홀
리스틱교육연구, 15(3), 80-82.
- 이재연, 김광웅 (2007).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분노표현과의 관
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0(2), 17-31.
- 이지영 (201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윤 (2011). 남녀 고등학생의 행동 활성화 체
계, 행동억제체계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주, 임지영 (2012). 청소년의 진로스트레
스, 분노표현양식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9(1), 75-93.
- 정선화 (2004). 특성분노를 보이는 여대생들의
인지 행동적 치료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성 (200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
부 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방
식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15(1), 91-
103.
- 정해숙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
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
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2010). 완벽주의적인 특성과 자기제시에
따른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동국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0). 부모-자녀의사 소
통 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중재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13-
219.
- 조영미 (2003). 청소년의 완벽주의성향 및 자기
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행
동과 기질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익 (2010). 운동선수들의 완벽주의 성향
과 스트레스 대처 및 분노표현 양식의 관
계. 체육과학연구, 21(2), 1235-1247.
- 조혜리 (2009). 양육행동, 공감능력, 분노표현
및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13. 4. 6). 중2 년 도대체 누구냐.
- 최지원, 박영숙 (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MMPI-A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수준. 청소년학연구, 18(9), 265-284.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한동화 (2008). 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에 대
한 연구 고찰. 심리치료, 8(2), 109-128.

- 황연덕, 이진숙 (2010). 부모의 방임행동,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아동의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10), 77-88.
- 황현주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인간발달연구*, 11(3), 63-82.
- Besharat, M. A., & Shahidi, S. (2010). Perfectionism, anger, and anger ru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5(6), 427-434.
- Harter, S., & Whitesell, N. R. (1996). Multiple pathways to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4), 761-777.
- Hewitta, P. L., Caeliana, C. F., Flett. G. L., Sherrya, S. B., Collins, C., & Flynna, C. A.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6), 1049-1061.
- Hewitta, P. L., & Flett. G. L. (1991).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64-468.
- Oana, A. G., Daniel, D., Raymond, D., & Tamara, D. (2011).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parent anger scal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nd World Conference on Psychology, Counselling and Guidance*, 30(1), 505-511.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13(1), 89-108.
- Stoe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295-319.

1 차원고접수 : 2013. 07. 14.
수정원고접수 : 2013. 08. 13.
최종게재결정 : 2013. 09. 02.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fectionism, Family Strength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upon Anger Expression Styles

Park, Kyoung Su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oon, Hyuk Ju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that perceived perfectionism, family strength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have on anger expression styles on the par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287 middle school students and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correlation, and ANOVA. This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nger adjustment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ere higher in boys' than amongst girl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showed that a higher level of perfectionism, family strength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ability of anger adjustment, higher perfectionism and higher anger suppression, and lower satisfaction with family strengths and school life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style of expression and suppression. Third, the relative influence and the factors which affects anger expression style, family strength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ere meaningful variables to help the ventilation of anger, and family relationships, perfectionism, satisfaction with class and class activities, a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were meaningful when it came to anger suppress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support is necessary for adolescents to help control their anger. Sugges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anger control programs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also outlined in this paper.

Key words : anger, perfectionism, family strength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